

방대한 농경지로 변해버린 사굴산과 本刹



◀방대한 농경지와 마을이 들어선 명주 학산리 굴산사터. 전성기에는 사찰 당우의 반경이 300m에 이르고 스님들의 수가 2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고영태 기자

큰 숲을 이루었다. 5교는 경전을 중시했던 교종으로 계율종, 법상종, 열반종, 법성종, 화엄종의 다섯 종파요, 9산은 좌선과 수양을 중시하던 선종으로 가지산, 실상산, 사굴산, 동리산, 사자산, 성주산, 회양산, 봉림산, 수미산의 아홉 선문(禪門)인 것이다. 그 가운데 이 곳 관동에서만 제1문인 가지산 파와 제3문인 사굴산파가 위풍당당한 선종

새임인 것이다. 물길은 이미 말라 '해가 담긴 물바가지'는 커녕, 목조차 축일수가 없는데 샘터 머리맡에는 무두불(無頭佛)인 석조비로자나불상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뒷담에 더욱더 목이 탄다. 굴산사터에서는 모두 3기의 비로자나불상이 발견되었는데, 농토 한가운데 작은 숲속에 간판을 건 지금의 굴산사 법당에 본존불과 원시불로 모셔져 있고, 그와 짝을 이룬 불상 하나가 지금 이 마른 샘터에서 다시 물길 물리기를 갈망하고 있다. 마을 입구 보호각 안에도 투박한 모습의 비로자나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굴산사가 가지는 교리적 의미나, 범일국사의 원력이 바로 비로자나불이 꿈꾸는 만다라 세상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새린된 조각의 부도에서 범일국사의 법당이...

범일국사의 부도(부도 제85호)는 마을의 북쪽 뒷동산에서 마을 전체를 굽어보고 있다. 부도를 만들 당시부터 현재의 자리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굴산사가 얼마나 큰 절이었던가를 다시금 실감케 한다. 범일국사가 입적한 이후, 고려 조에 들어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도 자체의 구조와 조각수법이 빼어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부도 하대석의 구름 조각은 마치 파이어르브는 듯 하며 중대석에 조각된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과 공양상의 모습은 뜰어볼수록 아름답고 화려하다. 고승의 열반은 이렇듯 맑고 향기로운 것일까, 탑신을 에워싼 불 향기가 고승의 법열을 느끼게 한다.

을 드날렸으니, 이 지역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고대했던 변혁의 발원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혁의 물결이 생소한 석천은 어드레 물이 말랐다. 변혁의 물결기가 범일국사의 상징이라면 국사의 잉태 설화를 간직한 석천 샘터는 단순한 우물이 아닌 사상의

통일신라때 범일국사 선풍 떨친 대찰 세월의 격랑 이겨낸 당간지주만 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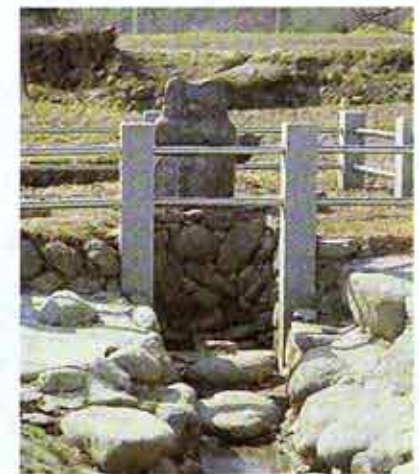
◀높이 5.4m의 당간지주(보물 86호)

835-937, 행적 832-916 같은 후학의 지도에 힘쓰니 여기서 사굴산파의 일가가 크게 번성했던 것이다.

범일의 큰 뜻을 닮았음인가, 굴산사터 초입에는 보물제 86호인 높이 5.4m에 이르는 최고의 당간지주가 도도한 세월의 격랑을 거슬러 당당하게 서있다. 보통 건물 3층 높이에 해당하는 그 위용만 자태는 매봉산 산세를 제압하고도 남는다. 여기에 불사나 법회를 알리는 당간(幢竿)이 세워져 권력적이고 있었다면 아마도 사랑 10여리, 대관령 영마루에서도 그 위용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대한 불상을 일으켜 세운 범일국사의 풍물길은 진면목을 여기서 발견한다.

신라의 천년 사직을 이끌어 온 사상적 지주였던 불교는 통일 전에는 교종의 5교로, 통일 후에는 선종의 9산으로 전국 도처에

길러 왔다가 바가지로 물을 뜨니 물 속에 계속 해가 떠 있어 물을 버리고 다시 댔으나 여전히 해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처녀는 그 물을 마시고 곧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아비가 없는 자식이니 마을 뒷산 학바위 밑에 버렸다. 아이를 버린 죄책감에 처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튿날 그 곳에 다시 가보니 뜻밖에도 학과 짐승들이 모여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보살피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보고 아이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데려다 키우니, '학이 키운 아이'.



◀범일국사 탄생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석천.

굴산사가 폐사된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공종과 성종 시기에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왕권 강화 정책에 의해 신복사와 함께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1936년 홍수로 6개의 주춧돌이 노출되었을 때 문공산사(文公山寺)라는 기왓장이 발견되어 굴산사라는 명칭과 함께 절의 면모를 짐작하게 되었을 뿐, 사찰 당우의 반경이 300m에 이르고 수도 승려가 200여명에 이르며 쓸쓸한 물이 동해까지 흘렀다는 굴산사 터는 이제 방대한 농경지로 변해 있다. 옛날에는 범일국사의 우직함 법력이 못 중생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웠으나, 지금은 그 타전한 농토가 되어 농부의 생계를 이어주며 영원 무량한 불문의 대자비를 베풀고 있다.

<사인·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여주 고당사터 편

우리나라의 폐사지는 모두 3천2백여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폐사지들이 1백여 곳.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도 역사의 뒷면에 방기된 채 무심한 풀벌레들의 서식지가 되었거나 세월의 그루터기가 되어 삭아 가고 있다.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명주 학산리 굴산사터

영동지방의 마지막 폐사지 탐험으로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굴산사(學山寺) 터를 찾아간다. 강릉에서 남서쪽으로 6km 떨어진 학산 마을에 소재한 굴산사 터는 강릉이 왜 독자적인 지방문화의 상징적 도시'로 꼽히는가를 보여주는 영동지방의 대표적인 불교유적이다.

시 북한 공작원들이 북으로 도주하면 길목인 매봉산이다. 학산리는 바로 대관령 자락인 매봉산 아래 고즈넉히 자리잡은 마을로, 대관령 동편에 이렇듯 큰 평야가 자리잡고 있음이 또한 예사롭지 않다.

옛부터 놀기 좋은 곳은 성산이요 살기 좋은 곳은 학산이라 불릴만치 풍요가 넘치던 학산 마을, 이 마을 전체가 굴산사터다. 가히 통일신라의 5교9산 중 일문을 이루었던 사굴산파의 본산이 있었을 법한 명당중의 명당이다. 굴산사터의 불교 유적은 전국 최고의 위용을 자랑하는 당간지주를 중심으로 사방 4천~5천평의 대지에 흩어져 있다. 이 방대한 불사를 일으켰던 범일(847-889)국사는 도대체 누구이며, 이 대찰이 역사 속에 빠져로 남겨진 사정은 또 무엇인가.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이미터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속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교상미국의 우진왕(優瑾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축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찬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054)533-5103 ■ 농업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상주 → 북장사

교정편: 교향버스: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온시나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